

## 고사리 - 나의 스무살 이야기

# 주머니가 많은 앞치마 (2026.6.22)

나의 스무 살은 '주머니가 많은 앞치마'였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주머니 하나를 더 채워 갔다. 빵을 굽고, 그림을 그리고, 한복을 입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만나며 그 안을 차곡차곡 채워 나갔다. 꿈의 주머니였다. 그렇게 주머니를 늘려 가다 보니, 어느새 지금의 내가 되었다.

2015년, 이어폰에서는 엑소의 「Call Me Baby」와 소녀시대의 「Lion Heart」가 번갈아 흘러나왔다. 블라우스에 테니스 스커트를 입고, 가방에는 늘 노트북을 넣어 다녔다. 누가 봐도 대학 새내기였다. 그해 나는 처음으로 부모님을 설득해 자취를 시작했다. 이유는 세 가지였다. 야간작업, 동아리,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미술 교육 봉사.

“네가 빨래는 돌릴 줄 아니? 설거지는? 화장실 청소는?”

부모님의 걱정은 당연했다. 한 번도 집을 떠나 살아본 적 없는 딸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물려서지 않았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다. 결국 부모님은 허락하셨고, 나는 학교 근처의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고시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좁은 방보다도 앞으로 펼쳐질 대학 생활이 먼저 떠올랐다. 고시원 생활은 나에게 앞치마의 주머니를 하나둘씩 선물했다.

### 주머니 하나, 야간작업

미술 실기실에서 밤을 새우려면 세 명 이상이 함께 남아 있어야 했다. 친구들은 야식을 시켜 먹으며 새벽까지 작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나는 늘 먼저 자리를 떠나야 했다. 집이 경기도여서였다. 막차 시간에 맞춰 짐을 챙기고 실기실을 나설 때면 친구들은 여전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건 어쩐지 그들만의 리그 같았다.

고시원으로 들어간 첫날, 나는 처음으로 막차 시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 작업이 끝날 때까지 남아 그림을 그리고, 새벽녘 실기실 문을 열고 나왔다. 서늘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항상 집에 있을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학교 앞 거리를 걷고 있었다. 별것 아닌 풍경인데도 왠지 새롭게 느껴졌다.

### 주머니 둘, 동아리

다양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다. 베이킹 동아리에서는 면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구웠다.

오븐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지만, 완성된 빵과 케이크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일은 즐거웠다. 한복 동아리에서는 허리 치마를 두르고 경복궁과 민속촌을 걸었다. 자연스럽게 허리를 세우고 자세를 가다듬게 되었다.

베이킹 앞치마와 한복 허리 치마, 그리고 아이들과 그림을 그릴 때 입던 미술 앞치마까지. 그 시절의 나는 옷보다 ‘앞치마’를 더 자주 갈아입고 다녔다.

### 주머니 셋, 고시원 사람들

막상 들어간 고시원은 생각보다 훨씬 좁았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작은 모니터 겸 TV 하나. 변기와 샤워기가 함께 있는 비좁은 욕실. 옆방 사람의 알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벽도 얇았다. 그런데도 그 방이 싫지는 않았다. 처음으로 가진 내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공용 주방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프랑스에서 온 자매와 친해져 함께 인사동 한옥 식당에 가기도 하고, 고시원 옆 카페에서 케이크를 먹으며 수다를 떨기도 했다. 서툰 프랑스어와 영어, 한국어가 뒤섞인 대화였지만 즐거웠다. 그중 한 언니는 한국인과 결혼해 부산에 정착했다.

우리는 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다. 서울의 작은 고시원에서 시작된 인연치고는 제법 오래 이어지고 있다. 일본인 친구와는 가끔 간식을 주고받았는데, 말보다 그런 작은 정이 더 기억에 남았다. 그 시절의 고시원은 좁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세상이 드러나고 있었다.

### 주머니 넷, 아동센터 봉사활동

지역아동센터 봉사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일이었다. 대학에 합격하면 미술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었다.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종이를 접고, 무언가를 만들었다. 늘 배우기만 하던 내가 누군가와 배움을 나누어 보니 새로운 세상이 보였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다. 어쩌면 지금 내가 그림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된 것도 그때 심어진 작은 씨앗 덕분인지 모르겠다.

### 주머니 다섯, 안부 전화

수업을 마친 오후, 고시원으로 돌아와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곤 했다. 창문으로 노을빛이 들어오던 시간이었다. 춘천에 계시던 할아버지는 늘 같은 목소리로 안부를 물으셨다.

“공주님~ 오늘은 뭐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물으셨다. 친구들과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실기실에서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이야기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저 평범한 하루의 기록이었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도 가끔 그 고시원 방이 떠오른다. 노을 빛이 스며들던 오후와 전화기 너머의 할아버지 목소리는 내 기억 속에서 늘 같은 장면으로 남아 있다.

## 지금도 입고 있는 내 앞치마

지금 돌아보면 스무 살의 나는 그저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 시절 주머니에 담아 두었던 것들이 아직도 하나씩 꺼내 쓰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주머니가 많은 앞치마를 입고 산다.

---

### 작가 소개

유월(柳越) 정주연

동양화를 전공한 미술치료사이자 문화예술교육사. 『숲 속의 병원학교 초대장』을 발간했으며, 서울시간호사협회 『간호사, 행복 더하기』 표지 일러스트를 작업하고 『마음 충전! 디지털 아트 파티』(한국과학창의재단, 2023) 공동 집필에 참여했다. 현재 기업과 학교, 복지관 등에서 그림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다.